

## 성서에 있어 번역의 개척자들과 매체: 예술과 동시대 매체를 통한 청중 끌어들이기

필립 노스\*

정창욱 번역\*\*

“성서 공회들이 속한 세계에서 그 공회들이 성서에 대한 진정한 필요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비 활자 매체 작업을 해오고 있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 내야만 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인가?” (숨픈 시리콜칸, 치앙마이, 2002)

### 1. 서론

19세기 초반의 초창기 때부터 성서공회 운동은 우선적으로 활자화된 책, 흔히 검은 표지와 빨간 모서리를 가진 책과 동일시되어 왔다. 이 책이 알려지는 이름, 곧 성서의 어원은 헬라어 단어인 “책”을 의미하는 βιβλος에서 유래한 βιβλίον이다. 이 단어를 좀 더 추적해 올라가 보면, 그것은 초기의 쓰기 작업이 이루어졌던 파피루스를 가리켰다. 그 초창기 기록된 존재로서 성서 본문은 처음에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졌고 그 때에 그것은 **토라(torah)**라고 일컬어졌다. 그 후에 책으로 묶인 송아지 피지나 양피지에 쓰여지게 되었다. 인쇄기의 발명과 더불어 성서 본문은 가죽이나 두꺼운 종이 표지를 가진 종으로 만들어진 책에 인쇄되거나 옮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의 거룩한 정경을 포함하는 초기 문서는 기록된 책이었고 바로 이 책이 최초의 성서 번역인 구약 헬라어 번역본 칠십인역 이래로 대략 2,500개 언어로, 전체든 혹은 부분이든 간에, 번역되어진 책이다.

하지만, 지난 이천 년 동안 책 형태로 기록된 매체로 성서가 보존되어 왔고 기독교계에 전수되어 온 반면, 성서의 메시지는 손으로 쓴 사본(**manuscript**)의 줄이나 인쇄된 본문에 제한되어 오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책 자체에 제한된 적이 없다. 반면, 로마의 카타콤의 벽에 그려진 상징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대표해주었다; 중세 시대에 손으로 쓴 원고(**manuscript**)들은 성서의 인물들과 사건

---

\* 나이다연구소 특별 컨설턴트

\*\* 총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들을 묘사하는 화려한 그림들로 치장되었다; 그리고 중세 유럽의 대성당 창문들은 찬연하게 색칠된 색 유리에 성서의 이야기들을 묘사했다. 교회에서 시골의 언덕에서, 그림들과 십자가의 역들(Stations of the Cross-십자가의 길을 나타낸 성상: 역자 주)로 알려진 동상들은 예수님의 고통,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들을 다시 고쳐서 만들어냈다. 이러한 시각적 묘사에 더하여서, 수난 연극, 기적 연극 그리고 신비 연극의 공연은 중세시대부터 현재까지 유럽의 마을들과 교회들에서 성서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 왔으며, 극화(劇化)해서 만들어 왔다.

## 2.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정책과 실행

1804년 영국에서 영국성서공회의 설립과 19세기 초 세계 각국에 성서공회 운동이 시작된 때부터, 성서공회는 어떤 형태든, 곧 선택된 책들의 형태든 부분들을 취한 형태든, 신약이든 성서 전체든 간에, 성서의 번역과 재생산, 그리고 배포를 강조해 왔다. 이 과정의 성공은 인쇄기와 현대 수송체계 그리고 의사소통에 크게 의존해 왔다.

1960년대부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성서 번역의 초기 시기는 유진 나이다(E. Nid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형성된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으로 알려지고 후에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으로 알려진 번역 이론에 의해 지배되었다. 본 논고의 목적을 위해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전제는 번역의 첫 번째 목적이 메시지(the Message)의 소통이었고, 이것은 성취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이 목적이 성취 가능한 이유는 한 언어로 말하여 질 수 있는 어떤 것은 다른 언어로도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되었다. 형태는 주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내용이 번역을 통하여 표현될 필요가 있는 것이었다. 밀드리드 라슨(Mildred Larson)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의미에 기반한 번역이 성서 번역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마셜 맥루한(Marsahlh McLuhan)의 지구촌 시대인 오늘날에, 의사소통 하나만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독자나 청자(hearer)의 수납과 수용 그리고 이행 없는 정보의 진술은 성서공회 운동의 중심 목표로 세워져 있기에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성서공회의 정책은 근래 몇 년 사이에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인쇄 형태로 된 본문의 의사소통으로만 번역을 보는 의견을 넘어 청중을 본문의 메시지와 연결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해, 성서 본문에 대해 독자들과 청자들은 단지 수동적 수용자들로서

본문을 받아들여야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본문과 능동적인 대화의 단계로 진입해야만 한다. 새로운 매체(new media)와 새로운 기술은 이 확장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다. 학술 단체에서 번역 전문가(practitioner)들은 현재 성서공회 관점에서 목적(skopos)의 중요성을 찬성하면서 주목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성서공회는 인쇄된 성서 메시지의 제시를 보충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체의 수용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1996년의 세계 대회에서 설립 50주년을 기념했을 때, 성서공회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만들어냈다:

새로운 기술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대부분의 사회에서 읽기와 듣기 습관들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어 왔다. 이 변화는 성서공회로 하여금 그 생활 방식이 활자에서 비 활자로 옮겨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년 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미드란드(Midrand)에서 열린 특별 세계 총회에서 성서공회는 아래의 목표를 “미드란드 방침”(Direction from Midrand)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공회의 헌신을 재확인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서를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성서와 관계하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되, 특정한 문제들(젊은이와 가족과 빈곤과 같은)이나 상황들(AIDS나 자연 재해들과 같은)에 관심이 있는 그룹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비 활자 매체를 포함한 모든 형태들로 유용한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라.

미드란드 방침은 개인적으로 메시지와 관련을 맺을 것을 요청한다. 미드란드에서 만들어진 성서공회의 “정체성과 목적” 선언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국제 언어학 하계 연구소(SIL International)의 해리어트 힐(Harriett Hill)은 최근 출판된 자신의 책에서 “청중의 관심을 얻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이 그 자체로 충분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아야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사소통과 이해를 향한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성서공회는 “성서 참여”(Scripture Engagement)라는 표현을 받아들였다. 참여의 목적은 인쇄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중 의사소통인 멀티미디어 세상에서 사용가능한 기술적 도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되었다. 실제로 오늘날의 과학 발전을 받아들이는 것은 초기와 중세 기독교인들이 성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서 그들 마음대로 모든 수단들을 사용했던 방법과 유사하다.

이 새로운 방침에 있어 첫 번째 단계들은 오디오 매체 영역에서 취하여졌는데 이 영역은 쉽사리 히브리어 성서와 헬라어 신약 기사들 모두의 초기 전승과 연관되어 있는 구전을 반영해 주고 있다. 덴마크 학자로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신학교의 교수이며, 전 성서공회 매체 코디네이터인 비고 소가드(Viggo Sogaard)는 성서공회들에 있어서 오디오와 비디오 매체를 “미지의 영역”이라고 묘사했다. 소가드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재단에 성서 본문을 오디오로 녹음하는 기술을 소개하는 작업을 맡았다. 세계의 성서공회들을 위해 오디오 사용에 있어 훈련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그는 90년대 중반에 태국에 두 개의 주요 국제 오디오 비주얼 강습회(workshop)를 열었다. 이 두 강습회는 오디오 테이프와 오디오 방송 같은 구장 사용을 위하여 번역할 때 생기는 복잡한 문제들과 오디오 녹음의 기본적인 기술적 문제들에 있어 컨설턴트들을 훈련시켰다.

빠른 기술의 발전과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그 기술의 수용과 더불어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옮겨가는 단계는 아주 짧았다. 아프리카부터 남미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서공회들은 위에서 인용된 미소소가와 미드란드(Mississauga and Midrand) 정책 선언들에 의해 격려된 비디오 제품과 그 발단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1989년에 이미 뉴욕에 있는 미국성서공회(ABS)는 새로운 노력 곧 “번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 위한 실험”으로써 “미국성서공회 멀티미디어 번역 사업”을 출범시켰다. 이 사업은 십대들을 그 주요 청중으로 선택했고 “복음서들에 나타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열세 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이것들은 VHS 비디오 테이프에 배포될 예정이었고, 곧 바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술 세계에서 CD-ROM으로도 배포될 예정이었다.

기술적으로, 미국성서공회 비디오들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고 국가로부터 상을 받았다. 또한 그 비디오들은 또한 대단히 비쌌고, 그 사업은 원래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비록 재정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창의력은 뛰어난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있는 성서공회들을 위한 유용한 모델로서 역할을 했다.)

태국에 있는 비고 소가드의 오디오 비주얼 훈련 강습회를 따라서 또한 미국성서공회 멀티미디어 사업의 종료의 후속 작업으로,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뉴욕 소재의 미국성서공회 성서 연구를 위한 유진 나이다 연구소 소장인 로버트 핫슨(Robert Hodgson)과 예수회 사제이며 캘리포니아의 산타 클라라 대학에 있는 커

1) 이것은 2001년도 11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성서 문헌 학회(SBL) 연례 모임 동안에 있었던 세션에서 윌리엄 미첼(William Mitchell)에 의해 관찰된 내용이다.

뮤니케이션학 교수인 폴 수쿱(Paul Soukup)과 비고 소가드의 도움을 받아 치앙마이에 세 번째 국제 강습회를 조직하였다. 그 강습회 주제는 “성서와 매체: 예술을 통하여 청중을 참여시키기”이며 주안점은 예술가와 예술가의 공연이다. 이 발표의 나머지 부분의 주제를 구성하는 것은 번역-매체 강습회와 그 강습회를 통해서 진행된 것을 소개하는 것이다.

### 3. 성서와 매체: 예술을 통하여 청중을 참여시키기

아주 간략하게 위에서 추적해본 역사와 오늘날의 의사소통의 기술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소가드의 오디오 비주얼 훈련 학기와 강습회들에 근거하게 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컨설턴트들을 위한 강습회의 개최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러리라고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과학적 가능성들이나 기술적인 진보들에 집중하는 대신 예술가들 자신들과 그들의 예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강습회는 번역과 공연의 만남을 위하여 음악과 춤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성서 주석가들과 함께 참여시킬 예정이었다. 관점은, 흔히 그렇듯이 성서 번역 사업에 있어서 규범이 되는 예술가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주석가/번역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석가/번역자의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예술가의 관점이 될 예정이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성서 전문가들이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질문은 어느 정도까지 예술이 성서 진리들을 의사소통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 강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번역과 매체 컨설턴트들을 대표하는 전세계에서 온 이십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두 주간 동안 열렸다. 개막사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실행 총무인 솜폰 시리콜칸(Somporn Sirikolkan)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1) 성서공회들이 그들 세계의 성서에 대한 필요들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엇이 행해져야만 하는가? (2) 성서공회가 청중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강습회를 조직한 필립 노스(Phillip Noss)는 그 회의를 “이론과 예술가들과 그들이 하는 작업과 더불어 그들이 사물들을 보는 방법과 다가가는 방법을 나누도록 우리를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소개했고, “직설적이고, 정직하며, 날카로운” 실제적인 토론을 요청했다.

수쿱과 핫슨과 소가드에 의해 진행된 첫 번째 주 발표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최신 매체 학계의 주제가 되는 이론적 쟁점들을 소개 받았다. 수쿱은 새로운 읽고 쓰는 능력과 새로운 문화, 그리고 복합적 지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학문이

있는/기록된 지능, 감정/사회적 지능, 음악적 지능,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영적 지능을 인용했으며, 그는 협력과 팀웍을 요청했다. 동시에 그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성서는 쓰여져야만 하는가?”

햇슨은 청중에 대한 옛 범주들은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으며 그 청중은 이제 아주 단편적이며 청중 프로그램 작성은 아주 심각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주해에 대해 말했고 강습회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시대에 주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시각적, 음향적, 촉각적 그리고 다른 단서들을 통하여 드러난 대로 성서 시대들의 기호학의 (semiotic) 체계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성서, 매체 그리고 교회”에 대한 특별 발표가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미국 지역 번역 책임자인 윌리엄 미첼 박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발표에서 그는 매체가 초기 때부터 현재까지 기독교회 안에서 해왔던 역할을 기술하고 토의했다. 또한 계획, 프로그램, 그리고 자료와 관련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재단을 통하여 나타나는 최근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들이 거기에 있었다.

태국과 우간다에서 온 공연 예술가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 세계로 인도되었다. 룯(Ruth)과 인카이(Inchai) 스리수완(Srisuwan)은 둘 다 음악가로서, 룯은 작곡가이며 가수이며 안무가이고 인카이는 민족 음악학자이며 악기 연주자이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태국 음악을 방콕의 거리에서 연주하며, 전통 음악으로 기독교 노래들을 쓴다. 에드워드 카부예(Edward Kabuye)는 바간다 왕 궁정의 드러머 가족 출신이다. 그는 작곡가이며 가수이고 드러머로서 “말하는 드럼들”(Talking Drums)이라 불리는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그 자신의 음악 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들은 현대 아프리카 음악은 물론 전통적인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한다. 이 예술가들은 모두 그들의 음악을 통하여 영향력을 만들어 내는데 헌신되어 있어서, 태국인 스리수완 부부는 종교 영역에서, 케냐인 카부예와 그의 팀은 사회 쟁점의 영역에서 헌신하고 있다. 그 예술가들에 대해 말하면서 카부예가 관찰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영적인 선물은 예술이다.” 룯은 “인카이는 음악 도구를 가져오고 나는 따라가서 예수님을 위해 그들(아이들)을 모은다. 우리 대신 문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습회의 실제적 세션은 물론 예술가들의 발표들을 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 주립대 출신으로 지금은 영국 셰필드 대학의 강사인 젊은 미국 민족 음악학자 캐슬린 노스 반 부렌(Kathleen Noss Van Buren) 박사가 도와주고 있었다. 그녀는 예술가들과 합류했고 예술가를 공연자(공연 미학)로 또한 예술가를 해석자(메시지의 해설자)로 특징 지워 설명하는 발표를 했다. 예술가들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녀는 “공연은 해석하는 것”이며 해석하는 것은 흔히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예술가들은 메시지를 평가하고 그 메시지를 교육하기 위하여 어떻게 청중들에게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들은 청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물론 그들의 도구들과 예술적 방편과 그 방편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예술가와 주석가가 본문이나 리듬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것도 중립적이지 않고 어느 것도 순전하지 않다.

강습회 동안에 오후 세션들은 우선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얻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이것은 예술가들의 음악과 안무 기술들을 배우고 모방함으로써 또한 예술적인 기술들을 성서 본문의 표현에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네 개의 본문이 성서에서 선택되었는데 그것들은 처음에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창세기 6:9-17에 있는 홍수 이야기가 첫 번째 도전이었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선택한 어떠한 연극 소도구든 그것들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제시해야만 했다. 두 번째 본문은 또 다른 구약 이야기인 사무엘하 12:1-25로서 다윗이 군사들 중의 하나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하여 다윗 왕과 맞서는 나단 선지자에 대한 기사였다. 세 번째 본문은 신약성서에서 온 것이었고 그 본문은 젊은 청중을 위하여 미리 정해졌으며 그 구절은 로마서 3:21-26이었다. 마지막인 네 번째 본문은 또 다른 신학적 본문인 고린도후서 6:4-10이었다. 참여자들 중 절반인 한 그룹은 남성 수신자 청중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지시를 받았고 두 번째 절반의 참여자들은 그들의 발표를 여성 청중을 위하여 준비해야 했다.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은 성서 이야기 책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자주 말로 이야기하게 된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중 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비교적 단순하고, 극적이며, 도덕적 결론, 곧 선은 악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다는 결론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그 이야기는 많은 전통적인 전설들과 신화들이 그렇듯이 어원학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무지개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그와 같은 홍수가 다시는 지구에 결단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신적인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참가자들이 노아와 그의 부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동물들 그리고 새들의 역할과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맡아 연기할 때에 그 공연에 수반하기 위해서 리듬과 노래들을 준비하는 것을 기뻐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야기의 얼마만큼이 표현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서 끝나야만 하는가? 그 이야기는 선과 악의 기원과 이제 인간 정계로 결말이 난 실낙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서의 창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이상의 해결을 보여주기 위해 신약으로 나아가야만 하지 않을까? 주석가들은 자신들 속에서 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두 번째 본문은 더 어려웠다. 첫째, 그것은 역사적 기사였고 인간관계, 권력, 허영, 은폐, 그리고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루었다. 어떻게 이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제시되어야만 하는가, 혹은 그것이 어린이에게 적합한 이야기인가? 그것은 젊은 청중들을 위해 삭제되어야만 하는 성서의 한 부분인가?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심 인물들이다. 그리고 성인 청중들을 위해 서조차도 어떻게 그것이 미학적으로 웃음과 조소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공연될 수 있는가?

본문의 어려움의 수준은 두 번째 주간에 심각하게 증가하였다. 두 본문 모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뽑은 것이었다. 그 본문들은 이야기 형식이라기보다는 해설적인 내용이다. 그것들은 도덕적인 기사라기보다는 신학적 진술이었다. 구조를 제공해 주는 어떤 분명한 이야기 줄거리나 플롯이 없었다. 첫 번째 본문인 로마서 3:21-26은 너무도 잘 알려진 본문으로 특별히 23절은 흔히 암송되는 구절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연기자들이 된 예술가들과 주석가들에게 이 본문이 던지는 도전은 어떻게 이 본문의 메시지가 음악과 춤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본문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도록 이야기가 공연될 수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인가? 그 젊은 청중을 위해서 이 본문은 무엇을 예시해 주는가? 예술가나 예술가들이 그들 자신의 본문의 해석을 담은 공연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주석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신학적 토론에 소요하였다!

마지막 본문인 고린도후서 6:4-10은 많은 저자의 경험, 하나님의 종으로서 덕스럽고 신실한 그의 노력, 빈번한 행위에 있어 그의 모순되는 수용을 인용하고 있어서 자서전을 생각나게 해 준다. 그는 이렇게 불평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어떻게 비극들의 지루한 설명과 덕목의 목록이 예술적인 공연에서 표현될 수 있는가? 예술가는 인생사를 대표하려고 시도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공연은 한 예로서 한 덕목을 취하고 그것을 테마 노래와 한 사건의 공연에서 발전시켜야만 하는가? 그리고 예견되는 청중이 남성이나 여성이나에 의해 결정과 선택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도 서신 본문은 남성과 여성 청중 모두를 위해 기록되었다.

강습회의 초점이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 그것이 음악이든 노래든 춤이든 그림이든 다른 시각적 소도구들이든 간에, 그 예술에 대한 해석적 사용이었던 반면에 강습회의 목적은 성서 번역의 경계들을 밀어서 넓혀 보자는 것이었다. 슌폰 시리콜칸의 개막 질문에 의해 암시된 대로, 새로운 매체가 우리에게 이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성서 본문에 충실함의 수용 가능한 범위와 규범 안에 머무르면서, 얼마나 더 새 매체의 이용으로 인해서 번역이 그 지경을 넓히도록 압박



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두 주간을 통하여서 토의 그룹에서 논의되었던 질문들이었다. 강습회의 끝에, 그룹 토론은 미래 포럼에서 더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요약되었다.

전체 토론에 기초가 된 것은 성서 번역과 배포에 있어 인쇄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들로 옮겨가는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성서 공회들을 위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은 새로운 매체들이 성서의 전달자들인가 아니면 성서로 가는 통로인가 하는 것이었다. 교회의 정경과 그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원 본문에 대한 충실함과 유사성은, 단순히 한 언어와 문화 분화를 가로지르는 뿐만 아니라 매체 분리를 가로지르기도 하는 번역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되어 지는가?<sup>2)</sup> 만일 발표가 활동적이라면, 발레 안무화된 몸짓과 성서 본문 사이의 조화는 무엇인가? 만일 그것이 노래라면 멜로디와 원 본문의 말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자면, 멀티미디어를 위한 창의력의 규범들은 인쇄 매체와는 다른 것인가? 만일 그들이 그렇다면, 다양한 주주들, 곧 번역자, 번역 컨설턴트, 성서공회, 기부자, 이사, 의도된 사용자들, 공동체 전체 또는 다른 어떤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무엇이 수용 가능한지를 결정해야만 하는가?<sup>3)</sup>

강습회 참석자들 중 한 사람인 토마스 카우트(Thomas Kaut)는 몇 개월 후 작성된 보고서에서 “강습회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와 작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었다”고 소견을 적었다. 그는 평형 상태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 예술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본문에서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요소를 보며 2) 예술가가 또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여러분은 진가를 알게 된다. “변함없는 강습회의 기억은 예술가들과 주석가들 사이의 긴장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여기에다 또 다른 강습회 참석자였던 쉘포 시필래(Seppo Sipil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sup>4)</sup>

2) 번역과 매체의 신실성의 문제는 상당한 정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7년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는 “새로운 매체 번역에 있어서 신실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멕시코의 메리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다음 책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Symposium and Translation: Communicating the Bible in New Media*, Paul A. Soukup and Robert Hodgson, eds. (Franklin, Wisconsin: Sheed and Ward and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99).

3) 폐막 토론에서도 역시 번역 컨설턴트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매체 작품들에 있어 컨설턴트들의 역할, 멀티미디어를 위한 재정, 다른 청중들을 위한 작품의 선택, 작품 지향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진행 지향적인 접근의 채택, 효과적인 준비를 이루어 내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과 정보 선택 제공의 필요성, 새로운 매체 작품의 사용, 그리고 많은 다른 관련 질문들.

4) 이 논평은 2003년 1월 17일 영국에서 있었던 유럽-중동 번역 위원회에 회의장에서 주어졌다.

#### 4. 강습회 결과

강습회를 마칠 때 이루어진 공식 구술 평가에서 강습회 참석자들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것은 예견되었던 일이다. 예술가들은 청중들과 일하는데 있어 극도로 정통한 경험이 있는 공연자들이었으며 이론가들은 동급으로 자신들의 영역에서 전문가였고, 참석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분야에서 높은 자격 조건을 갖춘 헌신되고 열정적인 컨설턴트들이었다. 그들 각자는 그 또는 그녀의 강습회 경험을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자신들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 집으로 가져갔다.<sup>5)</sup>

그러나, 그 강습회는 하나의 훈련 연습으로서 시간과 비용의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단지 제한된 참석자들만이 초대될 수 있었다. 강습회 발표와 경험이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통하여 공유될 수 있었을까? 한 책의 개요가 그려졌으나 이것은 즉시 거부되었다. 어떻게 매체 강습회의 내용이 인쇄된 페이지로 감소될 수 있었겠는가?

학문적 원격 훈련 과정에서도 같이 강습회이나 개별적 환경에서 사용될 교수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사용되어야만 한다고 결정되었다. 치앙마이 강습회와 그 다음해인 2003년에 이과수 폭포에서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트리니얼 번역 강습회(Triennial Translation Workshop)로부터 자원들을 사용한 공식적인 하나의 프로젝트가 고안되었다. 그 프로젝트는 청중이 예술과 동시대 매체를 통하여 성서와 연결을 맺는 방식들에 있어 번역자들과 번역 컨설턴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수(pedagogical) 자원을 개발할 것이었다.

그 프로젝트의 목적들은 다음과 같다:<sup>6)</sup>

“보고(See), 숙고하고(Reflect), 행하는(Do)” 접근법을 가지고 “성서, 예술,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교수 CD를 준비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함이다-

- 예술과 매체와 성서 본문을 번역 과정에 함께 가져오기 위함이며

5) Lynell Zogbo의 강습회 발표 논문 “Non-print Media and the Role of Translation Consultants”(비활자 매체와 성서 번역 컨설턴트의 역할)은 그 분야에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도전들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그녀의 논문은 Jean-Claude Loba-Mkole과 Ernst Wendland 편저서, *Interacting with Scriptures in Africa* (Nairobi: Acton Publishers, 2005), 165-192에 수록되어 출판되었다.

6) 이것은 “Resources for Translation Training: ‘Bible, Art, and Media’”라는 제목의 공식 제안서였으며 이것은 영국 레딩(Reading)에 있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 지역간 번역 봉사 사무소(Inter-Regional Translation Services)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O-21”(Opportunity-21) 기금을 위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다. 이 기획은 2005년 5월에 완성되었다.

- 번역자와 번역 종사자들을 번역 과정에서 시각적이며 움직이는 미술과 성서 본문 사이의 상호 연결에 참여시키기 위함이며
- 번역자들과 번역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매체가 성서 번역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들을 소개하기 위함이며
- 번역자들과 번역 종사자들로 하여금 도전들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매체에 의해 제공된 가능성들을 개척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폴 수킵과 산타 클라라의 그의 학생 팀은 그들이 했던 이 방법을 준비하도록 초대되었다. CD는 “성서 매체: 청중을 예술과 현대 매체에 연결시키기”라고 이름 붙여졌다. 내용은 각 과가 교수법적으로 세 부분, 곧 보기, 숙고하기, 행하기로 구성된 일곱 개의 과의 형태로 제시된다. 각 과는 아래 인용된 대로 분리된 장으로서, 보이기 위한 테마, 숙고되도록 하기 위한 테마의 자료들, 행하도록 하기 위한 연습들을 갖추고 있다.

- 1) 새로운 읽고 쓰는 능력과 새로운 문화(폴 수킵)
- 2) 청중 문화(폴 수킵)
- 3) 매체 형태와 매체 권력(로버트 핫슨)
- 4) 번역과 매체(애니 텔 코로)
- 5) 예술, 주해, 그리고 매체(캐슬린 노스 밴 부렌)
- 6) 성서, 매체, 그리고 교회(윌리엄 미첼)
- 7) 보다 깊은 숙고

각 과들은 주요 강습회 발표들의 내용을 요약해 준다. 자료들은 강습회와 이전의 미국성서공회 멀티미디어 사업과 멀티미디어의 현대적인 예들로부터 취해졌다. 연습문제들은 치앙마이 강습회 활동과 공연 모델을 따라 만들어졌다. 일곱 번째 과에 있는 보다 깊은 숙고를 위한 자료는 매체와 성서 번역에 관련된 네 개의 논문과 개막 강습회 세션 동안에 주어진 아프리카 구전 민간 설화의 공연 녹음 테이프를 구성되어 있다.<sup>7)</sup> 그 CD는 성서번역과 매체 훈련을 위한 실험 도구다.

---

7) 보충 자료의 제목들은 다음과 같다:

- Dieudonne P. Aroga Bessong: “Venez voir: An Audio Cassette in French for Young Teens.”
- Robert Hodgson: “This Bible Talks: Reflection on Audience Expectations and the Bible Engagement.”
- Rober Koops: “Bible Comics in the 21st Century: Where aer we? Who are we? What are we doing?”
- Julian Sandersingh: “Analysis of Density in Audio Scriptures: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 Phil Noss: Audio Story of Wanto (“Why we do what we do”).

두 번째 실험은 치앙마이 강습회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예술가 에드워드 카부예와 케냐의 나이로비에 있는 그의 “아프리카의 이야기하는 드럼들” 무용단에 의해 만들어진 두 공연과 비디오 녹음이었다.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큰 두 축제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다. 카부예와 그의 음악인들과 무용수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준비했고 나이로비 도시에 있는 한 지역 교회 공동체에 하나의 무용 드라마로 그것을 발표했다.<sup>8)</sup> 제목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행한 천사의 공포에서 따온 것으로 “오늘날 너희에게 … 구주가 나셨다”(눅 2:11)였다. 이야기 줄거리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기사에 근거하였다. 비디오 테잎 케이스의 커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인간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을 신비다. 그것은 입으로 말하여졌고, 그림으로 그려졌고, 연극으로 공연되었고 심지어 무용으로 표현되었다. 이 비디오 작품에서 … 이 신비는 해설되었고 대화하는 아프리카의 드럼들에 의해 최상의 무용으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우선적인 메시지-담지자로서 사용되는 노래들과 동반하는 춤으로 제시되었다. 키스와히리 단어들이 “Leo mwokozi amezaliwa” (“오늘날 구세주가 나셨다”)는 극적인 발표의 주제곡이 된다. 두 번째 극적인 올림은 누가복음 1:37로서 그 구절은 엘리자베스의 무자함이든 그리스도의 탄생이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가 드러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래는 그 비디오에서 주제곡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마지막으로 “Ndiye Kristu Bwana”(“그는 그리스도 주이시다”)라는 선언이 반복적 후렴 곡으로 선포되는데 그것은 기쁜 노래와 춤의 정점을 이룬다.

두 번째 비디오는 마가복음 14-16장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로 “Mwana wa Mungu aliteswa”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셨다”는 의미이다. 커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MWANA WA MUNGU ALITESWA는 아프리카의 맥락에서 복음전도를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매체의 두 번째 실험이다. 드럼과 춤, 노래, 연극과 아프리카 이야기의 융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때로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하는 독특한 접근법을 제공해 준다.

비록 그 대본이 성서의 이야기 줄거리를 따르긴 하지만, 그것은 부활을 향한 섬광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그 비디오를 위한 주해에서, 부활은 비디오 관객들

8) 실험 녹음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들 때문에 공연은 나중에 비디오 테이프를 위해 무대에서 녹음하였다.

앞에서 등장인물들에 의해 연기되는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 비디오에서 제시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는 예수님의 희생에 의해 만들어진 화합의 이야기다.

공연과 비디오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무엇인가? 모든 보고서들에서 실황 공연들은 공연대상이었던 소 교구 소속 사람들에게 아주 높게 평가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크리스마스 축하였다. 그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야외극”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자주 교회 단체들에 의해서 공연된다. 이 이야기를 대중적이며 전문적인 지역 단체에 의해 해석되고 공연되도록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수난”은 종종 부활절에 공연되었고 그 행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보다 본질상 더 엄숙하고 사려 깊기는 하지만 부활의 기쁨의 종결부는 ‘수난’을 기독교회의 삶에 있어서 아주 높게 평가되게 만들어 준다. 게다가, 그 이야기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까닭에 그것들이 예술적 형태로 나쁘게 해석되거나 잘못 전하여질 개연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두 실험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다. 첫 번째 비디오 커버 위의 광고는 이렇게 선언 한다: “전체 작품에 대한 지도는 카부예 에드워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또한 창의적 대본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예술가가 우위를 차지했던 치앙마이 강습회의 강조점이며 관점을 반영해 준다. 그래서 이 예술적 공연에서 예술가는 본문을 해석했고, 주해를 했으며, 대본을 썼고 발레 안무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가르쳤고 작품을 지휘했던 것이다! 강습회 참석자이기도한 장 끌로드 로바-음폴레(Jean Claude Loba-Mkole)는 번역 컨설턴트와 성서 전문가의 역할에서 조언을 했으나, 예술가의 권위는 지배적이었다.

두 번째 공연과 녹음을 위해서는, 번역 컨설턴트가 자신의 권위를 부여해 얹어 놓았다. 여기서 비디오 커버는 “MWANA WA MUNGU ALITESWA는 아프리카의 대화하는 드럼의 예술 감독(Artistic Director of The Talking Drums of Africa)인, 에드워드 카부예에 의해 만들어지고 감독되었다”라고만 밝힌다. 새로운 매체와 악기 난타, 안무, 노래, 연기 그리고 이야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아프리카 예술의 “혼합”을 인정한 후에, 에드워드 카부예는 감독과 제작자로 인정되고 있으나 그는 “창의적인 대본의 저자”는 아니다. 두 비디오를 한데 묶은 통합본의 커버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LEO AMEZALIWA MWOKOZI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대본은 Edward Kabuye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MWANA WA MUNGU ALITESWA는 부활절 연극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대본은 로바-음폴레 박사에 의해 채택되었다.

사실, 부활절 비디오에서는 크리스마스 드라마에서보다 드라마가 덜하고, 열

광적인 복치기와 춤도 덜하며, 창의성도 덜하지만 전통적인 번역 규범에 따라 더 주해적인 정확성이 있다. 로바-음폴레가 쓰고 있듯이, “비디오 실험은 ...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성서 비디오가 실제적인 예언과 주해로서 그 대상 청중과 더 적합하게 상화 작용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예술이 주해와 해석학을 지원해 주고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 대해서 예술가는 더 기뻐했다; 반면에 두 번째 비디오에 대해서 성서 주해자가 더 만족함을 얻었다. 예술가는 주해자와는 다른 근거로 공연을 판단한다.

## 5. 결론

숨폰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언급으로 돌아와서, 로버트 핫슨은 그의 요약에서 강습회 참석자들에게 역사를 통하여 이전에 이미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으며, 번역 컨설턴트들과 번역자들의 역할은 중재의 역할 — 곧 본문(메시지)과 그 동시대의 청중 사이의 중재 역할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청중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인쇄된 페이지인 책에 의존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이 역할이 최상으로 성취 되어질 수 있는가? 전달자는 지구촌 세계에서 새로운 매체의 이점을 감안하거나 그 이점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번역자로서 필요한 중재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멀티미디어의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의심할 나위 없이 몇 년 전에 다음과 같이 썼던 벨기에 학자 조세 람버트(Jose Lambert)에 동의해야만 한다: “번역’의 범주는 훨씬 더 커지고 더 개방되어야 한다.” 하나의 정의로서, 아마도 우리는 번역 같은 어떤 것은 원 본문과 두 번째 본문 사이의 과정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람버트는 2005년도 번역 세미나 동안에 행간에 쓰는 번역에 대한 전체 회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것이 번역이나 아니냐?”는 “아마도 대답해야 할 질문이 아닐지도 모른다.”<sup>9)</sup> 성서 번역의 경우, 우리는 신실함과 윤리의 새로운 규범들의 쟁점, 곧 새로운 매체가 어떻게 하든 어떤 방식으로건 오늘날의 청중들과 성서의 불변하는 메시지와 대화하고 관계하게 할 것인가 하는 쟁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요어>

메시지, 해석, 의사소통, 참여, 새 매체, 멀티미디어

9) 이것은 이태리의 미사노에서 개최된 번역, 의사소통, 문화 센터의 2005년 여름 번역 세미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언급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는, 상이한 매체 사이의 번역은 “초월합병”(transmediatization)으로 지칭되어 왔다.

<Abstract>

## **Frontiers of Translation in Bible and Media: Engaging the Audience through Art and Contemporary Media**

Dr. Philip Noss

(The Nida Institute of American Bible Society)

The Bible Society movement since its beginnings early in the nineteenth century has been identified primarily with a printed book, often with a black cover and red edges to the pages, called the Bible. Throughout history, the Message of the Bible has also been communicated in many ways other than the book: symbols have pointed to the Christian faith; heroes of the Bible have been depicted by artists in paintings; and the stories of the Bible have been presented dramatically in Christmas Pageants and Passion Plays.

In today's world of the "global village", communication alone is not an adequate goal for Bible translators. The policy of the United Bible Societies has therefore moved beyond the notion of translation as communication of the text to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engage the audience with the message of the text. This concept is called, "Scripture Engagement."

How can the audience be engaged with the biblical Message when the world is turning away from the written word? Frequently, books are not available; often, people cannot read or do not want to read. Increasingly, the potential audience is turning to the new media, audio cassettes, films, videos, CD-ROMs, DVDs, and the Internet.

Following earlier UBS workshops and training in audiovisual technology and practice, a special workshop was held Thailand in 2002 for artists and translation and media consultants. The workshop brought professional artists in the field of music and dance together with biblical exegetes and media experts for an encounter of interpretation and performance. The goal was to see how far the biblical message could be communicated through artistic form.

After the workshop, experimental videos were made in Kenya of a music and dance troupe performing the Christmas and Easter stories in Swahili. In the performanc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st was played out against the exegetical perspective of the translation consultant. A CD was also prepared for teaching media awareness and use to Bible translators and translation consultants.

It is important that Bible Societies use all available technical tools and skills for the proclamation of the Message in today's world. It is also clear that in doing so, we are pressing the definition of translation far beyond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the translated message on the printed page.